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11호

2022.08.18(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1차 지부교섭_ 제시안 없음]

8.24 총파업으로 간다!



또 다시 빈손교섭

8월 18일 대한이연에서 11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7주만에 재개된 지난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요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 논의가 깊게 이뤄지지 못했다. 교섭 후 간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이번주 교섭에서는 성의있는 제시안이 제출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사측은 빈손으로 교섭에 나왔다.

노조 우롱하는 사용자들

지역 사용자들이 지난 주에는 중앙교섭 의견접근 내용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에도 못 미치는 제시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교섭 후 노사

양측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지부와 지회를 완전히 우롱한 것이다.

8.24 총파업으로 간다!

중앙교섭이 의견접근된 이후에도 지부교섭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 각 사업장별 보충교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노조를 우롱하며 매우 불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다. 8월 24일 2차 총파업을 어느 때보다 힘있게 사수하자. 모든 지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함께 투쟁하자. 202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함께 가자!

이 정도면 노조 우롱하는 처사다!

노 : 지난 차수 교섭에서 회사측 제시안이 합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교섭이 금방 마무리됐다. 교섭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교섭에서 회사 제시안 기대해보겠다.

사 : 각 사의 경영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급적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산업전환협약을 ‘합의’ 수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성평가는 중앙교섭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 가능하다. 이런 정도까지 논의된 상황이라 제시안을 준비 못했다.

노 :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지난주 제시안이 노조 요구의 취지와 동떨어져서 논의를 더 못했다. 이후 간사 협의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나눴는데 아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산업전환협약에 대해 일부 사용자가 ‘협약’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다. 다음주 지부 2차 총파업 앞두고 있다. 보통 총파업 전에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럴려면 오늘 교섭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아예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투쟁하겠다.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나오면 어떤 논의도 안된다. 우리 지역은 사용자와 노조가 크게

갈등이 없이 10년 이상 왔는데, 2~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려스럽다. 사업장 보충교섭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지부교섭이 진전이 안되면 답이 없다. 제시안 없다고 하지말고, 회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의견 제시해달라.

사 : 사용자 내부 의견일치를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의견일치가 안된 상황이다.

노 : 지부가 3차 파업까지 더 준비해야 하나? 논의가 더 안될 것 같으면 말씀을 하셔라. 노조도 그에 맞춰 투쟁 준비하겠다. 산업전환협약에 대해 ‘합의’가 안되고 ‘협약’로 하자는 의견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용자측 의견일치가 됐나?

사 : 합의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어떻게 문구로 담을건지 이야기하고 있다.

노 :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도, 사업장 내에서 경영하면서 노조와 마찰로 어려웠던 게 있나? 너무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려고 하니, 교섭이 진전이 안된다.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으니 더 논의할 수 있는게 없다. 오늘 교섭은 여기서 마치겠다.